

일 주 문

각현 스님 자랑스런 총복인상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1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총복인사들의 모임인 (사)총복협회(회장 이필우)로부터 '자랑스러운 총복인상'을 수상했다.

해자 스님 불우이웃돕기
도선사 주지 해자 스님은 1월 16일 서울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08산 사순례기도회 회원들과 함께 관내 독거 노인 350여 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계사 신묘년 정초 천도재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2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묘년 정초 천도재를 봉행한다.

봉은사 백남준 5주기 추모재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1월 29일 봉은사 범왕루에서 고 백남준 선생 5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화계사 장학금 전달식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2월 4일 송산장학회에서 선정한 대학생 3명, 중고생 5명, 초등생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김천시다문화가족 2011오리엔테이션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진오 스님은 2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한다.

금강정사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광명 금강정사 주지 월병 스님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1월 23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법요식, 전통등 전시 및 금강정사 20년사 사진전 등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연우와함께, 설 특판수의 회향

불교계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 함께'가 신묘년 설 특판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기금으로 전달했다.
연우와 함께는 2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제수용 과일세트 수익금의 5%와 일부 수익금을 더한 민족문화수호기금을 전달했다.
'연우와 함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발의해 창업한 불교계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공익에 쓰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연우와 함께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해외약탈문화재환수운동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에 회향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응용불교학과 신설해 불교학 연구 중심되겠다"

정병조 신임 금강대 총장... 2월 18일 취임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천태종립 금강대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시작은 정병조 신임 총장 선출이다.
정병조 신임 총장(사진)은 1월 10일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회에서 신임총장으로 선출됐다.
"금강대가 불교계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 한국불교 세계화를 선도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정병조 신임 총장은 취임에 앞서 "대학 행정과 경영의 책임자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의 팀워크를 이끄는 리더로서 미래비전을 제시해 미래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병조 신임 총장은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내부적으로는 불교학 연구능력 배가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정 신임 총장은 "금강대는 논산 지역 대표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정 신임 총장 체제하에 사교육 지원에서 지역 학점은 행정 운영하고, 각종 문화강좌와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지역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불교학 연구능력 배가를 위해 기존 불교학과와 불교복지학과에 응용불교학과를 신설해 저변확대에 나선다.
정 신임 총장은 "불교학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불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응용불교 연구에 대한 지원은 한국불교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문한국(HK)사업으로 선정돼 인문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고 금강대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수 정예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강대가 정 신임총장 체제 하에서 천태종의 중창이념인 '참된 인간성', '진문적 지식',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병조 신임 금강대 총장의 취임식은 2월 18일 금강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김성녀, BTN 안방마님 되다

마당놀이 고별무대 후, MC로 발탁

한국전통 대표 인물들 만나, 불교예술 엮는다

'마당놀이'의 안방마님이었던 김성녀(사진)가 BTN불교TV의 새 프로그램 'BTN 예술공간 올림'의 새 안방마님이 됐다. 김성녀는 지난 2일 마당놀이 대표 3인방인 배우 윤문식, 김종영과 함께 30년 동안 출연했던 마당놀이의 고별무대를 이뤘다. 이번 프로그램에 새 진행자를 맡게 됐다.
프로그램은 작곡가 박범훈(중앙대 총장)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을 초대해 그들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김성녀는 출연자와 함께 사찰을 찾아 불교예술을 이야기하고 전통 예술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첫 녹화에는 장구 하나로 세계와 호흡하는 국악인 김덕수가 초대됐다. 이날 김덕수는 장구 연주와 함께 '사물놀이-김덕수'라는 공식을 만들기까지 삶의 여정을 풀어냈다. 또한 무용하는 아



내외 힙합가수인 아들의 흥미로운 가족사도 들려줬다. 앞으로 'BTN 예술공간 올림'에는 우리 시대 대표 소리꾼인 장사익, 소리의 맥을 잇는 국악인 안숙선, '효' 공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영민, 그 외 이자람, 박애리 등 젊은 소리꾼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의 소리보우자, 전통 악단의 공연, 불교 무용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류건욱 담당 PD는 "우리소리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며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TN 예술공간 올림'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50분에 방송된다.
이은정 기자

"사람과 소가 구분 없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이충렬 감독 강연회

"위당소리를 제작하면서 인간과 소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찍었습니다. 경계와 구분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 '위당소리'의 이충렬 감독(사진)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범안)가 1월 25일 템플스테이회관 교육관에서 주최한 제24차 포럼의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연에서 이 감독은 위당소리의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투영시켰다고 밝혔다.
"불교와 삶은 닮아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이 모두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환생을 소재로 한 영화도 구상 중입니다. 풍경 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억지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담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젊은 시절에 동성애자나 탄광노동자들의 문제를 영상에 담으면서 그들



이충렬 감독



영화 '위당소리'에서 어르신과 소가 함께 걷고 있다.

출처: '위당소리' 공식 블로그

의 이야기를 사회에 전하고자 했더니 감독은 매번 실패의 쓴 맛을 봐야 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 감독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좌절감을 느끼며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급기야 공황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는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며 3개월 동안 집에 있는 자신을 직접 촬영했다. 3개월 후 영상을 확인한 이 감독은 무기

력하고 삶의 의욕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살을 포기한다. 그 순간 봉화에서 위당소리에 출연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카메라를 다시 잡았다. 이충렬 감독은 이때를 절망의 순간에서 만난 '희망'이라고 표현한다.
"어르신은 소와 같은 속도로 걸으며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며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차츰 제가 너무 급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독은 3년 간 어르신들과 함께 위당소리를 촬영했고, 이 순간만큼은 공황장애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충렬 감독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였다고 깨닫고, 어르신과 호흡을 맞추고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촬영기법까지 버린다. 느린 속도로 소통하는 소와

어르신을 담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해 있는 그대로를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당소리의 성공으로 이충렬 감독은 독립영화 최초의 100만 관객 동원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계산기를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사람들 역시 이 감독을 돈과 연관지어 생각할 뿐이었다. 스스로도 성공으로 오염된 마음을 되돌리기가 힘들었다. 위당소리를 찍기 전처럼 다시 무기력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자는 날이 늘어갔다. 하지만 이충렬 감독은 최근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이다.
"불교적인 것들이 제게는 어머니 품처럼 편안합니다. 다음 작품도 불교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불교적 표현이라고 무조건 불상만 찍는 것은 관객들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가는 그대로를 담을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smie2@daum.net

불광불교기본교육 · 대학 · 대학원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불광불교기본교육 (3개월)

- 주요내용: 불자예절, 찬불가,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역사, 기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례, 불광신행 등
모집분야: 아침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 - 11시 50분, 저녁반: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50분
등록금: 5만원 (교재비 포함, 해인사 수련대회비 별도)
개강일: 2011년 3월 7일 (월)
* 기본교육은 해인사 수련반회가 있습니다. 꼭 동참을 하셔야 수료가능 합니다.
입학문의: 불광사 불광교육원 ☎ 02)417-2551 / www.bulkwangsa.org

불광불교대학원 (2년제 4학기)

- 불광불교대학원 · 대학원은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하여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고, 수행과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가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조계종에서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근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식문, 바라밀수행법, 2학기: 대승불교, 계율론, 바라밀신행과 불광운동
2학년: 1학기: 선불교, 포교와전법, 불교사, 2학기: 경전강독, 불교사회복지, 보현행원품

- 모집분야: 아침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저녁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단, 재일 · 법회가 겹치는 날에는 오후 2시 - 4시)
지원자격 및 등록금: 1.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2. 불교기본교육 수료자 (미수료자는 1학기내에 수료하여야 합니다.), 3. 등록금 학기당 25만원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사진 1장(반명함판), 기본교육수료증 사본
특 전: 1.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불광법회 명교사 자격 부여, 3. 학업성적 우수자 불광교수단 등용

불광불교대학원 (2년제 4학기)

- 불교대학원에서는 불교경전 및 수행법에 대한 심화학습과, 현대사회에 필요한 불교응용과정을 통해 불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불교대학원은 학점제로 운영됩니다. 매학기당 2~3개의 강좌가 요일별로 개설되며, 이 중 선택하여 4학기 동안 20학점 이상 이수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개설강좌: 초기불교 / 유식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반야 · 중관 / 대승기신론 / 선사상특강 / 경전강독 등

- 모집분야: 아침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저녁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지원자격 및 등록금: 1.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2. 등록금 학기당 25만원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사진 1장(반명함판), 불교대학졸업증 사본
특 전: 1. 불광전문포교사 자격 부여, 2. 학업성적 우수자 불광교수단 등용
대학 · 대학원 모집일정: 1. 모집기간: 1월 24일(월) - 2월 20일(일), 2. 합격자 발표: 2월 22일(화) 서류전형통한 인터넷 발표, 3. 등록기간: 2월 22일(화) - 2월 28일(일), 4. 입학식: 2월 27일(일) 오후 2시 불광교육원 3층, 5. 개강: 3월 8일(화)
입학문의: 불광사 불광교육원 ☎ 02)417-2551 / www.bulkwangsa.org

* 불광사에서는 '기본교육, 불교대학, 대학원' 이외에도 참선수행, 경전강좌 등 다양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